

**나이백, 글로벌 제약사들과 JP Morgan 헬스 컨퍼런스 후속 미팅 진행**  
▶ BIO KOREA 개최 계기를 통하여 글로벌 제약사들과 업무 협의 진행 예정

**[2019-04-17] 펩타이드 전문기업 나이백(대표이사 정종평)이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후속 미팅을 한국에서 진행한다.**

나이백은 올해 1 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JP Morgan 헬스 컨퍼런스 당시 나이백의 파이프라인에 관심을 가졌던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이전 관련 업무 협의를 BIO KOREA 2019 를 계기로 한국에서 후속 미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이백은 BIO KOREA 컨퍼런스를 통하여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과의 파트너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를 통하여 나이백이 보유한 펩타이드 기반 파이프라인인 골다공증 치료제(NIPEP-OSS)와 염증 억제 치료제(NIPEP-CARE 1-3)와 표적항암제(NIPEP-ACD-TIDE) 등에 대하여 글로벌 제약사와 업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이백 관계자는 “이번 기술 관련 미팅은 JP Morgan 헬스 컨퍼런스의 후속 미팅으로 그동안 당사의 파이프라인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해오던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파이프라인의 진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최근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 확보를 확실시하였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IO KOREA 2019 는 17 일부터 19 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의 바이오 전시관으로 먼저 컨퍼런스에서는 면역항암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단백질치료제, 질병진단기술 등 최신의 치료기술들과 빅데이터, AI 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산업혁신분야를 주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참가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나이백은 최근 연구개발의 진도 가속화의 목적으로 350 만주의 주주배정 대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한 바 있으며 펩타이드 기반 골다공증 치료제인 NIPEP-OSS 에 대한 임상 1 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